

시류음

해 방 의 감 격 통 일 의 환 희 로

8 . 1 5 찬 가

꽃이 피고 해는 솟아도
수난의 피눈물 마를새없고
숨막히는 질곡의 어둠만이 덮였던
이 나라 삼천리에
해방의 환호 우뢰처럼 터져오른
오, 8월 15일!

《조국해방 만세!》
《김일성장군 만세!》
이 땅을 진감하던 감격의 웨침이어
이날은 빼앗겼던 나라를 찾아주신
어버이수령님을
해방의 은인 절세의 영웅으로 높이
모신 날

짓밟힌 겨레의 눈물을 가져주시려
혈전만리 헤쳐오신 격전의 길
넘어오신 고난의 준령 그 얼마인지
수령님 열혈의 청춘을 바치신
백두의령봉이여 말하라
만주의 드넓은 광야여 말하라

아버님 물려주신 두자루의 권총
항일대전의 총대숲으로 펼치신
수령님
그 이름만 들어도 강도일제가 전를한
수령님은 백두산호랑이
조선을 구원하신 빨찌산대장

최후결전의 작전도우에 눈부시던
사령부귀틀집의 작은 그 등잔불
왜적의 머리우에 멸적의 불길되어 타

올랐다
보천보와 대흥단 항일의 친구마
다에
울려퍼진 격멸의 그 총성은
겨레에게 안겨준 해방의 승전고였다

눈보라를 헤쳐야 하는 고난의 행군길
수령님 헤쳐오신 피어린 자옥자옥
차디찬 언땅에 전우들 묻으셔야 했던
모진 아픔 이겨내며 오신 시련의 자
옥자옥
그 자옥우에 받들려 해방이 왔거니

그렇다, 수령님 계시었기에
8.15! 너는 이 땅에 밝아왔어라
너는 정녕 우리 수령님
겨레의 운명에 숨결을 부어주신
민족재생의 날

세월이 간들 잊으랴
대가 바친들 잊을수 있으랴
수난과 고통의 역사를 밀어내시고
이 강도에 청청 엄히였던
피절은 노예의 사슬을 벗겨주신
해방의 은인 수령님의 만고의 업적

이 나라의 모든 승리와 영광
존엄의 첫 기슭에 빛나는 날이여
전설적영웅 김일성장군 높이 모시어
광활한 새 조선의 미래를 열어놓은
8.15
빛나라 천추만대에 길이 빛나라

김 태 룡

만경대교향집 수수한 사립문
그 문을 열고나서시어
우리 수령님

멀지 않은 이 길을
항일의 20성상
피어린 혈전으로 헤쳐오셨습니다
사나운 눈보라 천리
시련의 준령을 넘어오셨습니다

낯설은 타향에서 부모님을 잃으신
참기 힘든 아픔 이겨내며 오신 길
열번 쓰러지면 다시 열번 일어나
끝까지 추쳐들었던 붉은기폭에
신음하는 겨레를 품어안고 오신 길

만경대에서 개선광장까지
이 길엔 있습니다
사생결단으로 넘으셔야 했던
천교령의 험준한 산밭에 올리던
반일전가
떠나는 고향 만경대를 그러보시며
눈내리는 밀림의 우등불가에서
수령님 늘 부르시던 사향이 노래
소리가

보천보의 밤하늘을 태우던
멸적의 불길이 거세차게 타오르고
미시가루 한흙으로

감회도 깊으시였다
저 멀리 수령선너머 바라보이는
조국땅
마음은 벌써 그 땅을 안으신틈
가슴속 격정 금치 못해하시며
수령님 하신 말씀

— 동무들 조국이요
우리는 끝내 조국에 돌아왔소

조국
순간도 마음속에서 잊으신적 없는
조국
설한풍 휩쓰는 이국의 산야에서
심장처럼 안고 사신 그 땅으로

빨찌산용사들의 가슴을 울리던
그 못 잊을 전설이 마음속에 뜨거
운 길

아, 빼앗긴 나라를 찾으리라
사립문을 열고 나서신 맹세의 길을
해방의 길로 개선광장에 이으신
수령님
위대한 항일전의 숭고한 력사가
혁명의 피초처럼 뻗어간 길이여

이 길에 피어나는 꽃은
해방을 안아오신 수령님 업적
있월에 담아 더욱 붉게 피어나고
이 길에 내리는 눈은
수령님 헤쳐오신 만고풍상 전하며
그리도 깊은 생각 불러주나니

만경대에서 개선광장까지
이 길은 비록 길지 않아도
해방의 은인 우리 수령님
불멸의 그 업적 길이길이 전하며
대를 이어 우리의 후손들
영원히 걷고 걸을 애국의 길이
여라

김 영 일

아, 해방을 안고 오시는 빨찌산장군
적탄에 뚫린 가슴을 헤치고
고향의 흙주머니 남기고 떠난
기관총수의 그 녀원 안고 오시는 길
이다
아직은 밟아보지 못한 땅
조국이란 글자를 백두의 이깔에 새
겨보던
애 어린 전령병의 그리움을 지니고 오
시는 길이다

아직도 열려져 있을 사립문
조부모님을 계시는 만경대로
부모님들 마음에 모시고 오시는 길
언 두부 한모를 놓고

쓰라린 작별을 해야 했던 동생의
모습
그날의 눈물을 가슴에 안고 오시
는 길

조국의 해방을 위해 그 땅을 떠난이
헤어보아 그 얼마였고
조국의 해방을 이루고 그 땅을 밟
는이
또 헤어보아 그 얼마이더냐
조국으로 돌아오는 개선의 이 길은
피와 청춘 생명을 바쳐 열어놓
은 길

하나된 조국 통일삼천리

김 송 립

수령님 안아오신 해방
그 해방은 북녘만을 위한 해방이었
던가
일제를 쳐부시고 수령님 안아오신
조국
그 조국은 분렬된 조국이 아닌
하나된 조국

하진만 해방의 그날로부터 69년
장구한 이 력사의 갈피갈피를
우리 기쁨으로만 번질수 없었노라
세월이 흐를수록 더더욱 깊어지는
분렬의 아픔이 있다

해방의 환희와 함께
이 땅에 찾아온 분렬의 고통
물어보자 겨레여
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8.15를
환희와 고통이 엇갈린 날로 맞아야
하는가

통분하구나!
이 나라 지역을 동강낸 분계선으로
이웃과 동네가 서로 갈라지고
진리편 친정집 나들이 갔던 안해가
백발을 이도록 돌아오지 못하는 이

망국노로 짓밟히던 겨레에게 주실
땅과 집 주인의 권리를 안고 오
신 길
피맺힌 굴욕으로 짓밟히던 이 땅에
자주의 역센 기둥을 안고 오신 길

아, 생각도 많고 사연도 많은
수령님의 개선길
조국이 수령님을 맞이했던가
수령님 이 조국을 안고 오시였
어라
해방된 삼천리강산
내 조국을 품에 안고 오시었어라

이대로 살수 없노라
우리 8.15를 이렇게 맞을수 없노라
저주로운 분계선 들어내치고
이 땅에서 영영 내물자
민족을 둘로 갈라놓은 《해방자》
저주로운 외세를 쓸어버리자

뜻깊은 8.15민족통일대축전
그 축전장에서 뜨겁게 맞았던
혈육의 두손을 다시 잡자
69년전 드높이 울리었던 해방만세
그 두손 높이 들어 통일만세로 울리자

분렬의 아픔 가져버리고
우리 겨레 기쁨과 격정으로
함께 맞아야 할 8.15
함께 빛내야 할 8.15

8.15 해방의 날을 통일의 날로
해방의 감격을 통일의 환희로
아, 8.15를 맞는 겨레여
해방조국 안아온 8.15를
통일조국 안아올 통일삼천리로 펼치
여가자

총 대 와 민 족 의 운 명

망국은 순간이고 북국은
천년이다. 나라를 잃기는 쉬
워도 다시 찾는 일이 그처럼
힘겨운 일이라는 말이다. 그
렇게 우리 겨레가 해방의 새
세상을 맞이하기까지에는 이
루 형언할수 없는 눈물과 고통,
장기간의 견고한 혈전의
대가를 치루어야 했다.

그러나 나라를 다시 찾
는 일만이 어려운 일이 아
니다. 되찾은 나라를 지키
고 빛내이기는 사실상 몇
갑절 더 어렵고 견고하다고
할수 있다.

공화국의 력사는 외세의
끊임없는 압살과 침략위협
으로부터 자기의 사상과 제
도, 존엄과 생명을 지켜내
기 위한 피어린 투쟁의 력
사였다. 그중에서도 지난 세
기 90년대중엽 고난의 행군,
강행군은 가장 견고한 시련
의 날이었다. 공화국의 존
엄과 인민의 운명을 지키는
냐 아니면 다시 제국주의의
노예가 되느냐를 판가리하던
준엄한 시기였다.

바로 그 엄혹한 시련의 나
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
는 제국주의련합세력의 핵전
쟁위협으로부터 나라와 민족
의 운명을 지켜주시려고 선
군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드
시였다. 선군장정의 이날 그
누가 내 마을 몰라준대도 회
망안고 이 길을 가고가리라
는 노래를 부르시며 선군의

의지를 굳히시고 때로는 한
공기의 강병이족을 드시며
시련을 헤쳐가신 장군님의
로고를 사람들은 오늘날 잊
지 못하고있다.

우리가 나라의 경제형편이
어렵다는것을 몰라서 인민군
대를 찾아가는것이 아니다,
그 어떤 괴값을 치르더라도
나라를 지키고파야 한다시며
전선에서 전선으로 선군장정
을 끝없이 이어가신 장군님
이시였고 국방력강화를 위한
문건에 수표를 하시며 우리
가 이제 승리의 통장훈을 부
르게 될 때 인민들에게 다 이
야기해주자고, 인민들은 왜
허리머를 조이지 않으면 안
되었는가에 대해 다 이해하
게 될것이라고 하신 그이이
시였다.

일찍부터 군사를 앞세우
고 국방공업을 발전시키는
것을 나라와 민족의 운명수
호의 관건적문제고 여기신
장군님께서는 선군령도의 전
기간 인민군대를 백승의 강
군으로 더욱 튼튼히 준비시
키시고 국방과학기술과 군수
공업발전에도 크나큰 로고와
심혈을 기울이시어 국방력
의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를
다지도록 하시였다.

군수공업부문을 주체화,
현대화, 과학화, 정보화하도
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
시고 국방과학기술을 급속히
발전시켜 현대전의 요구에
응답하여 한나산에 이르는
삼천리조선이었지 결코 두
동강이 난 조선이 아니였
다고 하시였다. 계속하여
그이께서는 우리는 어떤 시
련이 앞을 가로막아도 민족
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위
업을 기어이 성취해야 한다

모든것을 조국통일을 위하여

주체74(1985)년 9월 어느
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
군들에게 조국통일과 관련
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

였다.
그이께서는 우리 세대에
조국을 통일하려면 모든 일
군들이 언제나 조국통일에

맞게 첨단기술에 기초한 전
투기술기재들과 장비들을 개
발하도록 하신 장군님의 비
범한 예지와 정력적인 령도
에 의하여 공화국은 최첨단
전투기술기재들을 비롯한 현
대적인 공격수단과 방어수단
들을 마음먹은대로 만들수
있게 되었다.

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정치
에 의해 반공화국적대세력의
그 어떤 도발책동에도 대처
할수 있는 강력한 전쟁억제
력이 마련됨으로써 조선반도
의 평화가 수호되고 이 땅
에는 민족적화해와 단합, 통
일번영의 새시대가 펼쳐지게
되었다. 지난날 명성황후가
사무라이후예들의 손에 피흘
리며 쓰러지고 을사년의 치
욕을 강요당하고도 울밑에
선 봉선화의 처량한 모습으
로 몸부림치며 어대가서 하
소연도 할수 없었던 우리 민
족이 오늘은 그 어떤 대적
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존
엄높은 민족으로 자기의 자
주권을 당당히 행사하고있는
것은 바로 선군정치가 위대
하고 선군으로 다져진 공화
국의 핵억제력이 강하기때문
이다.

남녘의 겨레들도 《강
위력한 선군정치로 민족
의 안녕과 삼천리강토의
안전, 평화를 수호해나
가시는 김정일장군님이시야
말로 위대한 선군령장》,

《선군정치가 아니었다면
이 땅은 이미 전란으로 완
전히 폐허가 되고 우리 민
중은 전란의 희생자가 되었
을것이다.》고 장군님의 평
화수호업적을 열렬히 칭송
하였다.

위대한 장군님께서 나라
와 민족을 위해 걷고 걸으
신 선군의 그 길을 오늘날
은 천출명장이신 경에 하는
김정은원수님께서 이어가
신다.

지난해 조선로동당 중앙위
원회 2013년 3월전원회의에
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
병진시킬데 대한 전략적로선
이 채택되고 올해에는 조선
인민군 전략군의 전술로케트
발사훈련, 국방과학기술, 군
수공업부문에서 개발한 초정
밀화된 전술유도탄시험발사
와 같은 발사와 훈련들을 통
하여 우리 식의 전술로케트
과학기술과 사격방법이 완성
된 눈부신 성과들은 경에하는
원수님의 선군령도가 안아온
자랑찬 결실이다.

위대한 장군님의 뜻과
유훈을 빛나게 이어가시
는 경에하는 원수님의 현명
한 령도밑에 공화국은 앞으
로도 정의의 핵보검을 역세
게 틀어쥐고 침략의 불구름
을 막고 겨레의 안전과 평화
번영을 믿음직하게 담보할것
이다.

본사기자 김철진

확고부동한 통일의지를 지니시고

고 귀 한 가르치심

주체71(1982)년 공화
국창건 34돐을 맞는 날이
였다. 그 날 위대한
김정일장군님께서는 일군들
에게 조국통일과 관련한 귀
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.
그이께서는 우리
수령님께서 백두의협산군
령을 넘나드시며 일제를 반
대하여 싸우신것은 분렬된
조선을 위해서가 아니였으
며 수령님께서 백두밀영에
서 등잔불을 드시고 비쳐보
신 우리 나라의 지도는 백

두산에서 한나산에 이르는
삼천리조선이었지 결코 두
동강이 난 조선이 아니였
다고 하시였다. 계속하여
그이께서는 우리는 어떤 시
련이 앞을 가로막아도 민족
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위
업을 기어이 성취해야 한다

모든것을 조국통일을 위하여

주체74(1985)년 9월 어느
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
군들에게 조국통일과 관련
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

였다.
그이께서는 우리 세대에
조국을 통일하려면 모든 일
군들이 언제나 조국통일에

대하여 생각하며 일해야 한
다, 새벽에 일어나 창문을
열 때에도 조국통일을 생각
하고 밤에 불을 끄고 잠자
리에 누울 때에도 조국통일
을 생각하여야 하며 꿈을
꾸어도 조국통일에 대한 꿈
을 꾸어야 한다고 말씀하시
였다.

그러시면서 우리의 모든
생각은 조국통일과 잇닿아
있어야 하고 우리의 모든
사업은 조국통일로 지향
시켜 진행하여야 한다고 간
곡히 이르시였다.

본사기자



조국해방의 날을 맞게 되
면 자연히 통일에 대한 생각
이 더욱 갈마들군 하는 우리
겨레이다.

삼천리강토를 진감하던
해방의 감격과 기쁨이 외세
에 의해 민족분렬의 비운으
로 바뀌고 그 고통을 오늘
도 우리 겨레가 당하고있기
때문이다.

민족분렬의 력사는 흐르고
흘러 어언 근 70년.

하지만 우리 겨레는 결코
락심하지 않고 있다. 그것은
은 겨레를 통일어로
이끌어주신 회세의 위인이
계시기때문이다.

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
나라가 분렬된 첫날부터 하
나와 조선로선, 통일로선을
내세우시고 온 겨레를 거족
적인 통일에국투쟁으로 불리
일으키시였으며 조국통일3대
원장을 제시하시어 통일의
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.

위대한 김정일장군께서
는 어버이수령님의 조국통일
유훈을 관철하는것을 평생의
사명으로 간직하시고 민족분
렬사상 처음으로 되는 두 차
레의 북남수뇌상봉을 마련하
시어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
로 통일번영의 새 력사를 창

조해나가는 6.15통일시대를
안아오시였다.

오늘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
위업의 진두에는 조국통일을
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
치신 위대한 대원수님들
그대 로 이 신 경에 하는
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신다.
경에 하는 원수님께서는
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조국통
일사상과 로선, 불멸의 업적
을 견결히 옹호고수하시며 통
일을 위한 투쟁으로 온 겨레를

민족과 통일을 위해

함있게 불리일으키고계신다.
돌이켜보면 경에 하는
원수님께서 이어오신 애
국헌신의 나날은 위대한
대원수님들께서 그토록 녀원
하시던 통일을 위해 자신의
모든것을 다 바쳐온 날과 날
이었다.
사람들은 지금도 주체
101(2012)년 3월초의 그날을
잊지 못하고있다. 지나가는
바람소리에도 반사적으로 격
발기에 긴장이 서린다는 초
긴장지대로 공인된 판문점을
경에하는 원수님께서 시찰하
시였다.

그날 판문점에 세워진
수령님의 친필비앞에 이속도

록 서게시던 원수님께서는
어버이장군님께서는 판문점
에 무려 4차례나 나오시였다
고, 민족분렬의 비극을 가지
고 조국통일의 성업을 이룩하
기 위한 력사적문건에 생애
의 마지막 친필존함을 남기신
수령님의 애국애족의 숭고한
뜻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기
위해 판문점에 친필비를 남
기신 20푼이 되는 올해에
수령님과 장군님의 유훈을
발들어 조국통일운동에서 새

로운 진전을 이룩하
여야 한다고 하시면
서 통일부문에 나
서는 파업들을 밝혀

다고 해도 겨레에게 하루빨
리 통일된 조국을 안겨주시
려는 확고한 결심이 구절구
절 맥박치고있었다.

은 겨레는 판문점을 찾
으신 원수님의 발걸음에서
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조국통
일유훈을 받들어 이 땅우에
부장번영하는 통일강국을 기
어이 일떠세우시려는 절세의
애국자의 확고부동한 의지를
가슴뜨겁게 절감하였다.

경에하는 원수님께서
는 어버이수령님 탄생 100돐경
축 열병식에서 하신 연설에
서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
는 진정으로 나라의 통일을
원하고 민족의 평화번영을

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
지 손잡고나갈것이며 조국통
일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기
위하여 책임적이고도 인내성
있는 노력을 기울일것이라는
데 대하여 천명하시였다.

그이께서는 올해 신년사
에서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
국통일과 관련한 력사적문건
에 생애의 마지막친필을 남
기신 20푼이 되는 올해에
수령님과 장군님의 유훈을
받들어 조국통일운동에서 새
로운 진전을 이룩하
여야 한다고 하시면
서 통일부문에 나
서는 파업들을 밝혀

주시였다.
경에하는 원수님이시야말
로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
개척하고 걸으신 통일애국
의 길을 이어가시며 겨레의
가슴마다에 조국통일에 대한
굳은 확신을 안겨주시는 민
족의 어버이이시며 조국통일
의 구성이시다.

천리혜안의 예지와 숭고한
덕담, 탁월한 령도로 위대한
대원수님들의 조국해방업적
과 통일위업을 빛나게 이어가
시는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계
시어 조국통일위업의 승리는
확정적이며 우리 민족의 앞길
은 끝없이 밝고 창창하다.

본사기자 김강철